

# [ 1주차 『지쳤거나 좋아하는게 없거나』 ]

북클럽 팀명	MML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04월 14일(목요일) / 장 소 : CLC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17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백**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감상평 ]</p> <p><u>강**</u>: 지쳤거나 좋아하는게 없거나, 너무 유명한 에세이다. 에세이를 자주 접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책도 들어보지만 했을 뿐 막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북클럽을 통해 읽어볼 수 있어 좋았다. 우선, 왜 유명한지는 알 것 같았다. 누군가 살아가면서 한번쯤 생각하고 느꼈을만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간략하게 적혀있어 주제도, 내용도 읽는 것에 부담되지 않았다.</p> <p>책을 읽으면서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3가지 주제를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는 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말을 아끼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였다. 우리가 하는 후회 중 가장 큰 후회는 그 말을 하지 말걸이라는 문장에서 공감했던 것 같다.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막상 뱉어버린 말에 후회하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주제로 쓰여진 글이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다른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것 또한 공감했다. 나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한 글이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특징을 보인다는 이야기였다. 이는 두 번째 주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했다. 남을 의식하는 것과 사람에게 기대는 모습이 나에게 모두 있다는 것도 다시금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다.</p> <p>이렇게 나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이 단점들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p> <p><u>박**</u>: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처음으로 에세이를 읽어보았다. 그 당시 읽은 에세이도 이 책과 비슷하게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에세이여서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평소 책을 읽는다면 호</p>							

기심을 자극하는 단편 소설이나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에세이를 읽으니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었다. 옳은 행동, 맞는 행동은 상대적이지 않기에 모두 공감되진 않았지만 나를 컨트롤 하는 법,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유지하는 법은 배운 것 같았다. 모두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할 순 없지만 심란하거나 마인드컨트롤이 힘들 때 한 번쯤 읽으면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서 도움이 될만한 책이라 생각이 든다.

**박\*\*:** 현실에 지친 사람들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최근에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없어서 완벽하게 공감할 순 없어 아쉬웠다. 만약 내가 여러 고민을 할 때에 이 책을 다시 읽는다면 위로가 될 수 있을것 같다.

**백\*\*:** 처음 이 책을 봤을 때는 핑크색 표지에 파란 글씨의 에세이책, 부담없이 읽기 좋아보여서 고등학교 도서관 책장에서 처음 이 책을 꺼내 읽었다. 그 이후에도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종종 이 책을 찾아서 읽었다. 요즘 몸과 마음 모두 지쳐있었다. 생전 안맞아봤던 수액도 맞아보고, 각종 건강검진도 받았다.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는 것은 심리적 문제가 컸던 것 같다.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고 처음 느꼈던 몽클한 감동을 느꼈다. 챕터 중에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챕터가 지금 상황과 가장 잘 맞아 마음에 들었다. 나는 한가지 일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도 아니다. 다 적당한 흥미와 적성이 있어 힘들어한다. 누군가는 나에게 그정도의 재능, 그정도의 흥미가 축복받은 일이라고 하는데, 내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적당한 재능은 오히려 운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하는데, 이 책의 작가는 '내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적당한 시점에서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나도 많은걸 적당한 시점에서 포기하면서 살아왔다. 초등학생 때는 음악 영재라며, 서양 오케스트라를 했었고, 중학생 때는 거의 모든 국악기를 다루며, 국악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살았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시점에 나는 음악을 포기했다. 그리고 조리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요리사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나는 요리를 포기하고 대학을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은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다. 대학을 들어올 때는 임상심리사를 꿈꾸며 들어왔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진로 고민을 또다시 하고 있다. 작가도 태권도 선수, 의류사업, 광고회사 등 다양한 길을 걷고 포기했다. '주변에서는 끈기가 없다고 한다. 끈기 없는 사람이 되겠

다. 차라리 대신 내가 끈기 있게 하고 싶은 일을 끈기 있게 하며 살겠다.’ 끈기 있게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평생의 과업이 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삶으로 마무리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 어려운 길을 택하고자 한다. 끈기 있게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찾고 싶다.

### [ 본인의 번아웃 경험 ]

강\*\*: 막상 번아웃의 경험을 이야기하려하니 잘 나오지 않았다. 사실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겪은 것들이 많이 없을지도 모른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할까?를 생각했지만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번아웃의 정확한 의미를 검색해보았다. 번아웃이란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로 무기력증·자기혐오 등에 빠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 의미를 보고 더욱 본인에게는 번아웃 경험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번아웃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한 가지 일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에서 반성한 것 같다. 물론 정말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고통이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고도 생각한다. 이기적이게 들릴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본인에게 있어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경험은 꼭 번아웃을 동반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고싶은 일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박\*\*: 번아웃은 한 가지 일을 몰두했을 때 일어나는 무기력증 혹은 자기혐오 등등..을 말하는데 나는 그 중 무기력증이 지금과 같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많은 일이 한 꺼번에 몰려오지만 막상 자신없고 해결될만한 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면서 흥미는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

박\*\*: 군대를 전역하고 번아웃이 왔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에 전역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볼려고 저금도 열심히 하고 계획도 짜냈는데 전역을 하니 코로나로 인하여 계획하던 것들이 다 소용없어진 상황이라 허무한 기분에 아무것도 하기 싫었었다. 전역 이후에는 바쁘게 지내면서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었던걸로 기억한다.

백\*\*: 번아웃은 3개월에 한번씩 한번 올 때 2주정도 왔다 가는

데 이번에는 길게 왔다. 작년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4개나 뛰어서 힘들었다.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심리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사장님, 아르바이트 중 학생과의 마찰, 아주머니와의 마찰 등 대인관계가 힘들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학기가 시작되고, 끝날것만 같았던 번아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우울증으로 번져버린 것이 힘든 것 같다.

### [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만의 태도 ]

강\*\*: 사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편이긴 하지만, 그 다가가는 것이 정말 상대를 알고싶거나 상대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다가가는 것은 드문 것 같다.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혹은 되도록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많은 이유를 차지한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길게 유지되지도 않는다. 처음부터 관심이 없으니 그 관계를 유지할 힘을 쏟고 싶지는 않은 마음 가지고 있다. 이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잘 바뀌지는 않는다. 관계가 유지되려면 본인의 노력도 필요한데, 그 노력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관계가 위태로워지면 그 때는 또 아쉬워한다.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도 않고 관계가 끊어짐을 아쉬워하는 본인을 자각할 때마다 후회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는 방법을 바꾸고 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소수의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박\*\*: 일단 멀리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다가간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면 어느정도의 거리를 두고 내가 파악한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한다.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에겐 마음을 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의식을 한다면 아직까지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것 같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얕은 관계보단 깊은 관계를 선호하고 나에 대해 금방 파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에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깊은 고민상담을 하면 마음이 쉽게 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박\*\*: 인간관계에 있어선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는 성격이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부터 심리적으로 가까워 지는 편이다.

백\*\*: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고집도 세고 자기주장이 세서 좀 탐색해보고 친해지는 경향이 있고, 친해지고 나서는 더 친해질 사람이다 아니다를 생각해서 진짜 친한사람으로 분류가 되면, 이것저것 다 퍼주고, 손익 계산 안하고, 과거의 경험이나 뻔뻔한 말들도 서슴치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아직은 좁고 깊은 관계가 편하고, 넓고 얕은 관계는 옆에 두고 가끔 연락한다.

### [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한 자신만의 노력 ]

강\*\*: 학창시절부터 현재까지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무언가에 몰두하고 그에 대한 성취를 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 인생이 꽤 재미없게 흘러간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래서 저번 겨울방학에는 약간의 시도를 해 보았다. 좋아하는 것,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을 바꾸는 것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다. 사소한 변화에서 사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다녀온다던지, 안 읽던 책을 읽는다던지, 평소에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잘 하지 못했던 것부터 시작했다.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니 그 속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기 더 수월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새벽의 조용한 느낌과 그 공기를 좋아한다거나, 운동 후의 약간의 성취감을 좋아한다거나, 꽤 많은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너무 거대한 무언가를 찾으려 애쓰는 것 같았다. 주변에 많은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방학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틈틈이 찾아보려한다.

박\*\*: 딱히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 노력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좋아하는 것은 우연히 알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다보니 어쩌다보니 좋아하게 된 것이고 가수도 그들의 노래를 듣다보니 좋아하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걸 노력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다. 굳이 노력을 해봤다면 처음에 성격이 맞는지 헛갈리는 친구와 더 약속을 잡아본거.. 밴드 동아리에 들어간 거..? 그것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던 것 같다.

박\*\*: 나의 경우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이 생긴 편이라 무언가를 좋아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경험은 없다.

백\*\*: 어렸을 때부터 하고싶은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공감을 못했는데, 점차 나이가 들고 공감이 되다 보니 어떤 일을 해야 적당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양한 진로와 전공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2년 04월 14일

참가자대표 : 강\*\*

## [ 2주차 『제3인류』 ]

북클럽 팀명	MML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05월 05일(목요일) / 장 소 : CLC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17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백**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style="text-align: center;"><b>[ 감상평 ]</b></p> <p>강**: 이 책은 특이하게도 첫 부분이 지구의 시점으로 서술된다. 지구의 살이라고 볼 수 있는 땅을 인간들이 똥으면 지구는 아파하고, 지구는 자신을 괴롭히는 인간들에게 대응하여 지진을 내기도 한다.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이야기 속에서 인격화된 지구의 독백은 인류가 지금처럼 자기 파괴적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지구 행성을 소모한다면 종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p> <p>이 때 생각했던 가장 처음의 감상은 신기하다. 라는 감정이었다. 우리가 유년기 시절에도 종종 지구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환경 교육을 받아왔다. 즉, 지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꽤 가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이 지구의 시점으로 서술한 것을 보고 있을 때,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작가의 상상력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떻게 이런 문장들을 구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 지구의 입장을 생각해 본 건 나도 같은데, 그 표현력이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느낌이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든 생각은 작가의 상상력과 표현력이 대단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처음의 것이었다.</p> <p>그 뒤로도 꽤 흥미로웠다. 고생물학자들이 남극을 탐험하며 발견한 17미터에 달하는 유골을 발견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예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정말로 있을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게 이야기를 쓰는 것도 작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책 속에서 나오는 인간 소형설과 여성화설 등의 가설 또한 현재 있을 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니,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가령 우리의 조상이 정말 우리와 같은 크기인가부터 같은 종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종으로부터 파생된 것인지 등 일상생활속에서 잘 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책이었다.</p>							

박\*\*: 유명한 책이라 옛날부터 흔히 들어봤던 책이었다. 자아가 있는 지구의 시점으로 인간들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읽을 때 난 제 3의 관찰자면서 책 속의 지구이자, 인간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유명한 책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정보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첫 장을 넘기고 읽었을 때 인간을 마치 통제하고 밑에서 바라보는 듯한 대사에 지금 이건 누구의 시점일까 라는 궁금증이 먼저 생겼다. 그러다 몇 페이지를 읽다 지구의 말이란 것을 알았다. 유치원때부터 자연을 막 대하면 지구가 아프다 라는 말을 종종 들었지만 막상 지구의 입장에서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한 번도 지구에 이입해서 세상을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나 같이 생각한 사람은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은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불편졌다. 예를 들어 돈의 가치는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 가치는 허상에 불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괴로워진다. 그렇기에 인간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본능도 나에게도 있기에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았을 때 더욱 하찮고 쓸모없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해진 것 같다.

박\*\*: 나는 평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을 재밌게 읽은 편이라 이번 제3인류 역시 기대감을 안고 읽었다. 제3인류는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sf소설인데 이 작가의 팬으로서 그의 특징이 많이 묻어나오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이 소설에는 그가 이전에 썼던 작품에서 사용된 요소가 많이 등장해서 이 작가의 소설에 익숙한 독자들이라면 더 친숙하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설은 인간이 소형 인류인 에마슈를 만들어내고 그 에마슈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내용인데 인간이처음에는 에마슈들을 통제했지만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에마슈가 생기고 1권이 끝이 나기 때문에 북클럽 활동이 끝나도 2권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소설에서 느낀 특이한 점인데 작가는 지구에게 지성을 부여해서 절대적인 존재로써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을 전개한다. 지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들을 진화시켰지만 되려 인간들이 지구를 파괴하는 상황이 되어 지구가 느끼는 감정과생각을 묘사한 부분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최근 자기복제라는 비판을 받는 작가이지만 입문하기 힘든 sf소설 쪽에선 접근성이 좋은 작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f소설을 시



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다.

백\*\*: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여러 권 읽어보았다. 그중 이 책도 베르나르 베르베르 특유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소설 속의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이 이야기는 지구의 시점에서 진행된다. 소설을 읽으면서 지구와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분리수거, 쓰레기 줍기 등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또한, 초소형 인간 제 3인류인 에마슈를 만들어내며 인간의 자기복제에 대한 영화에서만 봤던 일이 이 소설에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흥미있게 읽었다. 뒷 이야기도 빨리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인간이 에마슈와 같은 지성을 가진 소형 인류를 만들어낸다면 인간과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가? ]**

강\*\*: 인간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소형 인류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용이 목적이 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목적을 잘 상기해야 한다. 제3인류 속 에마슈와 같은 소형 인류를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과 같다.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그 순간부터 본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소형 인간을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는 책과 무관한 본인의 생각이었고, ‘제3인류’와 연관 지어 이야기해보자면, 에마슈와 같은 소형인간을 만든 이유는 미래인간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인간과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가가 다시 문제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동등하게 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의지적이든 아니든 차별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 동등하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 인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소형 인류가 만들어진 이유도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일 것이다. 인류에게 인간과 같은 인권을 준다 하더라도 신체 구조상 소형 인류들은 차별을 받을 것이며 혹은 반대로 인간이 차별받게 될 수도 있다. 그로인해 인간과 소형 인류의 분쟁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소형 인간이라면 인간들은 더더욱 같은 인간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생물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

을 부여하는 것이 소형 인류들에게 더 잔인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한 소형 인류들을 위한 섬을 만들어 준다하여도 소형 인류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옛날에 인간들이 그랬던 것 처럼 땅과 세력을 넓히기 위해 결국엔 인간들과 싸우게 되어 원원하지 못할 관계는 만들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박\*\*: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인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예전 제국주의 국가들의 악행을 되풀이 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인공 생명체들도 지성을 갖고 있다면 인간과 같은 생각을 공유할 것이고 같은 인간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가축들도 아니고 인간과 같은 언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어 인간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백\*\*: 동등하게 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과 에마슈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엄연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등하게 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인간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에마슈는 에마슈만의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는 가능할 수 있지만,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

2022년 05월 05일

참가자대표 : 강\*\*

## [ 3주차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2』 ]

북클럽 팀명	MML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05월 12일(목요일) / 장 소 : CLC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17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백**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style="text-align: center;"><b>[ 감상평 ]</b></p> <p>강**: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2」는 진리, 철학, 과학, 예술, 종교 등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에 집중한다. 1권의 내용이 현실과 근접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2권은 그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p> <p>책의 첫 부분에서, 진리에 대한 태도를 묻는다.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주의를 취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나왔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단일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상대주의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닌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된 하나의 진리가 없을 뿐 다양한 진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후자에 동의하는 입장이다.</p> <p>이러한 탐색 뒤에 책에서는 진리에 대한 역사를 설명한다.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순으로 이야기하는데, 막상 한 페이지에 정리하고 보니 진리에 대한 과거 사람들의 태도가 확실히 보였다. 원시시대에는 자연신을 진리라 생각했고, 고대에서는 신을, 중세에는 유일신을 믿었고, 근대에는 이성이 진리였으며, 현대에는 그와는 조금 다른 반이성을 진리로 삼고 있다.</p> <p>여기서 느낀 것은 과거 진리를 매우 편향적으로 생각했구나 라는 것이었다. 책에서도 이야기한다.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진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중세에는 신이 진리이며 그 외의 것은 반사회적인 것으로 대하였고, 근대에는 이와 반대로 이성적인 것, 현실적인 부분을 진리로, 그 이외의 것을 진리라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진리에 대한 것은 상대주의 적인 태도가 조금은 증명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분위</p>							

기에 따라 진리가 바뀌는 것을 보면 이미 증명된 것이 아닌가?

현재를 생각해 보면 진리에 대한 생각은 꽤 다양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요즘이다. 하지만 미래에는 현재의 우리도 편협한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진리에 대한 것이나 그 이외의 것을 지금 보다 더 관용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박\*\*: 2권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와 같은 현실 너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철학같은 경우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져 보는걸 엄청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책은 복잡하기 보다 정말 상식, 교양적인 면을 배우게 되는 책인 것 같다. 인상깊었던 부분은 현대미술에 대한 부분이었다. 세상 속에는 많은 예술 작품이 있지만 일반적인 예술의 느낌이 아닌 작품은 우리가 어색하게 느끼고 심지어는 그 작품을 예술이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는 현대미술을 단순화하면 '새로움에 대한 강박'이며 이 들은 선구적인 개척자만 역사적으로 가치있다고 인정받아온 현실이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탐색한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나니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니체의 영원회귀에 대한 설명에서 인간은 죽고 나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히 반복된다는 말을 하였다. 지금 게을리 살면 다음 생에도 그럴 것이며 지금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면 다음 생에도 성공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인생은 한 번뿐이라 생각하는 나로써 조금 이해가 안 간 부분이지만 지금 번아웃이 온 상태여서 그런지 자극이 왔던 부분이었다.

박\*\*: 일반인들이 인문학을 가볍게 접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그대로 얕은 지식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흥미를 느꼈다면 더 깊숙이 공부해보기 좋다.

철학, 과학, 예술 등 평소 흥미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는 부담스러웠던 분야에 대해 입문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현실을 바쁘게 살아가느라 교양을 쌓을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지적 허영심(스노비즘)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인가를 아는 척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책은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책이라고 느꼈다. 이 한 권이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남들에게 아는 척을 할 수 있어 추천하고 싶었다.

백\*\*: 이 책은 내가 읽자고 먼저 제안한 책이어서 더 흥미있게 봤던 책이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시리즌은 0, 1, 2 총 3권으로 이루어져있다. 그중 우리가 읽었던 2권은 현실 너머의 진리, 철학, 과학, 예술,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 이 주제들의 모든 밑바탕은 진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예로 과학은 불변의 진리라고 믿던 것이 깨어지고 더 믿는 것을 진리로 추구되는 과정이다. 나는 과학 파트가 가장 재미있었는데, 그 이유는 양자역학 때문이었다. 나는 양자역학에 대해 아예 무지하던 사람이었다. 주변에서 양자역학을 얘기할 때면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만나와서 그런건 잘 몰라”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대넓약2를 읽으면서 양자역학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양자역학이란 원자나 전자 단위의 소립자를 측정하는 과학인데,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는 과속카메라와 같은 경우 자동차에 파장을 쏘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자주 사용되는 과학이다. 남자친구가 과속을 할 때면 앞에 과속카메라가 있다고 늘 말하며 과속을 주의하라고 말해주었는데, 그럴 때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서 오차범위 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의 ‘그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양자역학 때문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속카메라가 움직이는 소립자인 자동차를 향해 파장을 쏘 경우 이 소립자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속카메라가 쏜 파장에 이 소립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측정한 결과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확률로써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에게 흥미롭게 와닿았고 재밌었다.

### [ 진리는 있다고 생각하는가? ]

강\*\*: 앞의 감상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진리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책에서 진리가 있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절대주의를 취한다 이야기하고,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얼추 맞는 것 같다. 어느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서, 진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중세에는 신을, 그 이후인 근대에는 혁명으로 인한 신의 몰락과 이성의 지배를 볼 수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진리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박\*\*: 잘 모르겠다. 우리는 개인마다 의견을 중시한다면 당연히 진리는 없다고 할 것이며 지구에서 먼지만한 사람들의 세세한 의견은 좁은 의미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큰 범주밖에 없으니 한국에 제주도가 있다는 것 처럼 진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는 진리는 처음부터 인간들이 만들고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먼저 진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다면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미가 희미하다면 사람들이 진리가 있다 없음을 판단하기엔 아직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박\*\*: 없다. 진리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에 답이 딱 하나만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모두에게 진리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다. 어떤 것에 진리가 있다고 믿는 순간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한정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 때문에라도 나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 편이다.

백\*\*: 나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진리에는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가 있는데 절대주의란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 상대주의(실용주의)란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믿는 것이고 회의주의란 알 수 없다고 믿는 것이라고 한다. 진리의 역사는 과거 오랜 기간동안 절대주의를 따르다 근현대에 와서는 상대주의를 따르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나 역시 절대주의보다는 상대적 진리인 상대주의를 추구한다. 절대적인 진리인 '왜 사는가'보다 '일단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나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리의 종류 중 상대주의의 관점을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진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2022년 05월 12일

참가자대표 : 강\*\*

## [ 4주차 『죽음의 수용소에서』 ]

북클럽 팀명	MML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05월 19일(목요일) / 장 소 : CLC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17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백**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style="text-align: center;"><b>[ 감상평 ]</b></p> <p><u>강**</u>: 이 책은 나치 정권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한다. 저자인 빅터 프랭클 교수는 본인이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생에서 살아갈 의지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p> <p>저자의 직접 겪은 이야기는 그 상황을 생생하게 알 수 있게 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저 단순히 좋지 않게만 생각했던 나치 정권 시대였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시대를 너무나도 쉽게 정의내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p> <p>책에서, 빅터 프랭클 교수는 인간 본성의 민낯과 무엇이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해 의학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설명한다. 강제 수용소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사람에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그들에게는 그 것이 평범한 것임을 생각하면,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의 변화는 적절한 문장이 아닐지도 모른다.</p> <p>과연 나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과 대체 왜 그들이 강제수용소라는 곳에서 생활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인상 깊은 장면들이 하나씩 등장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악몽을 꾸는 사람을 깨우지 못했던 저자의 행동이었다. 좋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깨우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악몽을 꾸는 사람을 깨우지 못한 저자의 행동은 사실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었는데, 그 이유가 꽤 인상적이라 기억하고 있다. 악몽도 현재 상황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 그 상황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다. 그 이외에도 친구가 아닌 사람들의 죽음에 무감각해진다거나, 먹고싶다는 본능에 집중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인간성이 버려진 그들의 모습 또한 그 당시의 상</p>							

황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책에서 저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과연 내가 강제수용소에 있었다면 인생의 의미를 상기하며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책이 왜 유명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조금 더 본인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다시금 나의 생활에 감사할 수 있는 계기 또한 주는 순간이었다.

**박\*\***: 죽음의 수용소는 1장은 수용소에서 겪는 작가 자신과 사람들의 심리, 2장에서는 로고테라피, 3장은 비극 속에서의 낙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작가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치 수용소에서 5개월 간 지내며 수용소와 그 속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제수용소는 인간의 영혼을 파해치고 영혼의 깊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였으며 그 인간성에서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는 특성을 발견하였다 라는 문장에서 수용소 속의 삶이 얼마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확 와닿았다.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도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것처럼 강제 수용소에서 풀려난 사람들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문장에서 인간의 잔인함을 한 번 더 느꼈으며 환경과 경험이 얼마나 신체적, 심리적으로 영향이 많이 끼치는지 생각했고 나였다면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박\*\***: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책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출신 작가의 감정이 내용에 많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책을 읽었을 때 흥미로웠던 것은 작가가 상당히 객관적인 시선에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써내려 갔던 것이었다. 정신과 의사 출신인 작가는 수용소에 갇혔을 당시 수용소에서 점차 변해가는 사람들에 대해 분석하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아무래도 실제로 수용소에서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참했던 아우슈비츠의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작가는 감정을 절제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매우 객관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만약 내가 그곳에서 작가와는 다르게 모두의 감정을 공유하며 함께 고통을 받아들였다 라면 그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차분하게 묘사하는 작가를 보며 오히려 나의 감정이 요동치는 기분을 느꼈는데 그만큼 그 당시 아우슈비츠의 처참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했



다. 작가는 아우슈비츠에서 직접 보고 겪은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덕분에 아우슈비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작가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살아가기 위한 의지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 계속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싶다.

**백\*\*:**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는 사실 어머니께서 인생책이라고 꼭 읽어보라고 늘 강조하셨는데 이제야 읽게 되었다. 읽어보니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하셨는지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이 책은 빅터 프랭클 박사가 나치 시절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가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죽지 않기 위해 젊어보이려고 면도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 그렇게 힘들게 보내던 시간 속 남은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일 뿐이었다. 삶의 의미를 찾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 또한 삶의 의미를 찾아 많은 시간 방황했었고 지금도 찾는 중이다. 이 책을 읽고 나는 빅터 프랭클 박사님처럼 지금 죽음의 수용소 안의 긴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생생히 느끼고 그 안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나의 삶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 **[최근에 힘들었던 순간과 그것을 통해 얻은 삶의 의미]**

**강\*\*:**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알려주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의미는 나에게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봤다.

토론에서 막상 힘든 순간을 이야기하자니 딱히 생각나지 않았다. 그동안 힘든 순간을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힘들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생각했다.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이 힘들냐고 묻는다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유독 커졌다. 3학년이 되니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점점 더 크게 깨닫고 있는 중이다. 학생의 기간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게 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더 큰 것 같다.

아마 누구나 이 고민을 하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 그 시기를 지나고 진로를 준비하는 순간에도 힘들음을 느끼는 사람

이 많을 것이고 나 또한 그럴 것이다. 이처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느냐를 묻는다면 최근 깨달았던 것은 힘든 시기는 무조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진로에 대한 고민 자체는 힘들지만 그 순간이 없다면 성장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은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의 보람 또한 느끼고 있다.

**박\*\***: 최근에 힘들었던 순간은 지금이라 생각한다. 작년과 다르게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한 이번 해는 새로운 만큼 어려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 밤 낮이 자주 바뀌어 피곤하고 일주일마다 같은 일정이 반복되어 매번 비슷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나로써 지루하다는 생각도 자주 느껴 더 피로함을 느끼는 것 같다. 이번 일로 느낀 건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나에게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또한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이기에 그렇지 않는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박\*\***: 작가가 찾은 삶의 의미는 개인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는 별것 아닌 고민이 누군가에게는 크게 다가오듯이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의미는 다양한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같은 경우 최근 힘들었던 경험은 크게 없었지만 진로의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생각해왔다. 여기서 내가 느낀 삶의 의미는 하고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돈을 번다는 행복보다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백\*\***: 나에게 최근 힘들었던 순간이 있냐고 물어보면 정말 매순간이 힘든 지금이다. 학교에, 근로에, 아르바이트에 연애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늘 사로잡혀서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도 많지 않았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고민이다. 주 전공인 심리학을 살려야 할지, 복수전공인 언어병리학을 열심히 해서 언어재활사가 되어야 할지, 아니면 코딩을 열심히 해서 개발자가 될지 고민이 많았다. 나는 돈과 보람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 그중에 이 책을 읽고 나는 보람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 봤을 때 남들을 도와주기 이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던 나는 임상심리사와 언어재활사 중에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임상심리사로 지금은 마음을 굳힌 상태이다. 이 땅에 오게 된 이유, 나의 삶의 의미, 어쩌면 이것은 나의 삶의 의미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나의 현재 삶의 의미이다.

2022년 05월 19일

참가자대표 : 강\*\*

## [ 5주차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가지 힘』 ]

북클럽 팀명	MML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05월 26일(목요일) / 장 소 : CLC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17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백**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style="text-align: center;"><b>[ 감상평 ]</b></p> <p><u>강**</u>: ‘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가지 힘’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은 ‘종교’라고 볼 수 있겠다.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로마제국의 기독교 채택, 중세시대의 이야기였다.</p> <p>로마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제국의 주인이 황제에서 신, 혹은 그 대리인인 교황으로 옮겨가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서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던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뒹영킨다. 그리고 종교가 정치보다 우위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러한 분위기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자유로운 발상과 창조력이 모두 억압받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p> <p>이 시대가 언급되면서 생각했던 것은 만약 현재가 위와 같은 시대, 종교가 우위인 시대라면,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했을까 궁금해졌다. 생각해 보면 아마 본인은 그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약간의 불만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보다는 자본주의가 있는 세상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면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에 적응하며 살아갔겠지만, 불편함까지는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p> <p>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가지 힘 중 하나가 종교라는 저자의 말에서, 일부 동의한다. 위의 이야기를 제외하고서라도, 현재에도 종교는 우리 삶에 꽤 깊숙이 침투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은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에 대한 영향력을 약간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p>							

**박\*\***: 이 책의 작가인 사이토 다카시는 지루한 암기 과목이었던 세계사를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근대화와 산업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재밌게 설명 해주고 있다. 미국의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서 ‘커피’는 왜 사람들이 열광하고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을까, 커피 외에도 홍차, 금, 브랜드 작게는 콜라도 어떤 요인이 사람들에게 와닿았을까 라는 의문을 토대로 설명해 주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빈부격차, 종교, 전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해석이란 열린 결말의 소설이나 영화 등의 해석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 따른 느낀 점의 해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읽을 사람이라면 카테고리를 나누며 읽는 것이 아닌 앞의 내용과 5가지 욕망에 대해 생각해보며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해서 읽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역사 자체로 본 것이 아닌 내가 항상 생각하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관점 속에서 고민하고 분석하면서 읽었다.

**박\*\***: 이 책은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다섯가지 키워드를 순서대로 설명한다. 이 책에서 내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첫번째 키워드인 욕망 중에서도 커피였다. 처음에는 뜬금없다고 생각했지만 고작 음료일 뿐인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하우스가 만들어졌고 그 커피하우스에서 사람과 정보가 모여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바뀐 것을 보며 작가의 이런 발상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세계사를 흥미로운 키워드로 관심이 생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입문서로 좋았다고 생각한다. 작가가 언급하는 키워드 다섯가지가 모두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것들이기 때문에 제국주의, 서양의 근대화 등 세계사의 중요했던 부분들을 가볍게 접하기 좋았고 부담 없이 세계사를 맛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었다.

**백\*\***: 이 책은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다섯 가지 힘인 욕망, 모더니즘, 제국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몬스터와 종교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짚 훑어보는 책이었다. 세계사에 대해 배웠던 것은 중학교 시절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했고, 요즘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세계사에서 벗어나 ‘코카콜라가 어떻게 세계사의 큰 흐름을 만들고 변화시켜왔는지’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것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올라가듯 세계사를 다루는 것이

재밌었다. 내가 재밌었던 부분은 특히 차와 커피의 차이를 기술한 부분이었는데, 커피 문화권의 사람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 커피를 먹었고, 차 문화권의 사람들은 한숨 돌리며 쉴 때 차를 마셨다고 한다. 따라서 Coffee Time이라고 하지 않고 Coffee Break라고 하고, Tea Break라고 하지 않고 Tea Time이라고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있는가?]

강\*\*: 사실 유토피아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유토피아를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토피아는 무엇일까? 본인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약간의 불행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시작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불행이 없는 삶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간의 불행을 기반으로 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토피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유토피아를 생각한다면 자본주의가 유토피아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아래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그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 즉 모든 사람의 행복과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유토피아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사회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간다면 현실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유토피아의 범위를 인간까지 잡을 것인가 또는 자연까지 잡을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나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생각해보았다. 먼저 인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한 일을 접하고 경험하고 도전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빈부격차는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라는 말로 삶에 대한 압박이 생기는 것 같다. 과도하게 일하고 집착하고 성공만을 바라보는 사회는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하

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최근에 스웨덴의 직장은 직원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는 영상을 보고 난 뒤 스웨덴같이 성공의 가치가 돈 뿐만 아닌 건강도 있다는 자본주의 사회라면 조금 더 노력하면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하지만 자연까지 행복한 사회, 유토피아는 어떤 사회와 사상을 갖더라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며 이전부터 자연을 파괴하며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자연까지 행복한 유토피아라면 큰 문제점이 사라져야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박\*\***: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빈부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모두가 동등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에 차이가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토피아가 실현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들이 이윤의 추구를 목표로 시장을 독점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토피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다.

**백\*\***: 자본주의 바탕이든, 다른 사상을 바탕으로 하든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토피아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인데 그런 세상이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애초에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 잘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남 잘되면 배아프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때문에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자본주의까지 더한다면 가지고 싶은 사람은 더 가지려 할테고,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빈부격차가 있는 사회에서는 원래도 없다고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더더욱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인가?]**

**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

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욕심은 인간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이 본래 악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간에 있어서 본래 악하고 선하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성격은 그 주변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본다. 그렇기에 유토피아가 인간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가를 묻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진 않다고 본다. 그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미 욕심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사실 꼬리를 물고 생각해보면 현재 존재하는 욕심이 존재하는 사회도 인간이 만든 사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이 만든 사회는 유토피아가 되기 힘들지만, 그것이 무조건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박\*\*: 나는 인간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난 현재 근대화가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지금 사회가 변화해온 이유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 생각한다. 인간이 악한 이유는 주변 영향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 주변 영향의 시초는 인간의 나쁜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욕망 속에는 욕심도 존재하고 이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무너지고 존재할 수 없게 된게 아닐까 생각한다.

박\*\*: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물이다. 만약 유토피아가 있어도 그곳은 오래 가지 못하고 인간들의 다툼으로 분열이 생길 것이다. 나는 성악설을 믿는 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가 존재하고 유토피아에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백\*\*: 인간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에 토론에서 말했듯 인간은 악함을 타고나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이 토론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유토피아가 존재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유토피아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는 인간이 본래 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05월 26일

참가자대표 : 강\*\*



## [ 6주차 『시네필 다이어리 1』 ]

북클럽 팀명	MML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06월 02일(목요일) / 장 소 : CLC							
참석자 명단	학번	2020	이름	강**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17	이름	박**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백**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style="text-align: center;"><b>[ 감상평 ]</b></p> <p><u>강**</u>: 철학자와 영화의 만남이라는 부제목답게 이 책은 영화를 배경으로 한 철학이 등장한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영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영화를 배경으로 한 철학의 개념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영화는 총 8개의 영화가 등장하는데, 모두 한번씩은, 아니면 꽤 여러번 봤을 법한 영화들로 구성되어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깊게, 눈에 띄었던 영화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였다. 중학교, 아니면 훨씬 전부터 자주 봤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더 인상깊게 느꼈는지도 모른다.</p> <p>이 책에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신화적 상상력은 현실을 거부하는 가상현실이 아니며, 현실의 중요성을 박탈하여 현실에서 멀어지는 대체 현실도 아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영화는 현실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능동적인 판타지이다.” 이 말이 기존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사실 지브리,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들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실 도피와 비슷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된 듯 싶다.</p> <p>다양한 영화가 등장하는 시네필 다이어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영화들도 한번쯤은 보고싶게끔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다. 꽤 신선하고 재미있는 책이다.</p> <p><u>박**</u>: 이 책은 철학자가 8개의 영화를 철학의 언어로 설명해주고 있다. &lt;색, 계&gt;, &lt;순수의 시대&gt;, &lt;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gt;, &lt;시간을 달리는 소녀&gt;, &lt;굿 윌 헌팅&gt;, &lt;쇼생크 탈출&gt;, &lt;뷰티풀 마인드&gt;, &lt;원령 공주&gt; 이렇게 총 8가지 영화가 있다. 이 전에 나도 동화를 철학으로 풀어본 경험이 있어 나름 흥미로운 주제였</p>							

다. 이 영화는 왜 이렇게 표현했으며 의미는 무엇인지 플랫폼을 통해 찾아보는 편이었는데 이 책에선 내가 본 영화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시간을 달리는 소녀> 밖에 없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게 좀 아쉬웠다. 인상깊었던 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미지의 모험을 통해 운명을 마주하고 자기 내부의 소명을 발견, 영혼의 변신을 꾀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한다는 부분이 많은 영화 해석을 봤지만 영화 자체로의 해석이지 안으로 들어가 깊이 있는 해석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확 와닿은 느낌을 받았다.

**박\*\*:** 이 책은 8가지의 영화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했다. 나의 경우 철학은 약간의 흥미는 있었지만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못한 그런 분야였다. 그렇지만 평소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책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는데 나에게 영화를 철학적인 시선으로 본다 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라 신선하게 다가왔다. 여러 철학이론으로 내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를 해석해주는데 정말 이렇게도 영화를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철학에 대한 약간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지브리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데 책에서 지브리 영화를 많이 다뤄서 더 관심있게 읽었다. 평소 철학에 관심은 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영화를 자신이 생각치 못한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백\*\*:** 이 책은 영화와 철학을 하나로 엮은 책이었다. 책의 내용은 롤랑 바르트와 <색, 계>, 조지프 캠벨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수잔 손택과 <굿 윌 헌팅>, 질 들뢰즈와 <시간을 달리는 소녀>, 프리드리히 니체와 <쇼생크 탈출>, 피에르 부르디외와 <순수의 시대>, 카를 융과 <뷰티풀 마인드>, 가스통 바슐라르와 <원령공주>가 담겨있다. 나는 이중에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외하고 한번도 본 적 없는 영화들이라서 내용을 온전히 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가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중 하나이다. 그의 작품 중 버랑 위의 포뇨를 정말 좋아해서 집에 만화책까지 있을 정도이다. 그의 만화영화라면 꼭 보는데 아직 못본 영화가 아직 많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책을 읽는 내내 철학은 어려워져서 집중이 잘 안되었고, 영화 내용이 나올 때 그나마 집중할 수 있었다. 철학자 중에는 심리학 전공이기도 해서 카를 융만 알

고 있었는데, 카를 융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다.

### [ 자신의 가장 인상깊었던 영화는? ]

**강\*\*:** 인상 깊었던 영화를 이야기하자면 꽤 많아서 막상 하나만 고르려니 조금 힘들다. 당장 기억나는 영화들을 훑어보자면, ‘향수’, ‘노트북’, ‘미드나잇 인 파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미드나잇 인 파리’이다.

이 영화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귀와 눈이 즐거운 영화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미술작품처럼 등장하는데,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다. 파리의 강과 주변 건물들의 조화가 낮이든 저녁이든 아름다운데, 이 영화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영상미이지 않나 생각한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영화에 등장하는 ost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속에서 재즈곡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그 곡들 모두가 너무 취향이라 영화를 다 본 뒤에도 거의 매일 찾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가 영화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아마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하지 않을까. 가볍게 보기 좋은 영화기도 하고, 그 속에 등장하는 유명 작가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매우 신기한 경험이 될 것 같다.

**박\*\*:** 나는 미키 다카히로 감독의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이다. 이 영화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 서로 반대로 흘러가는 이들은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시기에 마주쳐 사랑을 하고 헤어지게 되는 스토리이다. 이 영화는 한두 번 밖에 안 봤지만 인상깊은 이유는 설정도 한 몫했지만 더불어 영화만의 공기와 분위기라 생각한다. 잔잔한 봄날의 공기와 포근한 색감이 영화를 보는 내내 나른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평소에는 팀버튼 감독의 프랑켄 위니, 코렐라인을 즐겨볼 정도로 오싹한 영화를 좋아하지만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이 영화를 봤던 처음의 감정은 다신 느낄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다. 스토리 적으로 재미가 있어 추천한다기 보단 마음이 복잡하거나 포근한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은 영화이다.

**박\*\*:** 나는 영화 취향이 대중적인 편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예산을 많이 투입한 블록버스터 영화이다. 나는 영화를 내가 직접 다시 찾아보진 않는 성격이지만 그런 내

가 거의 10번 가까이 다시 본 영화가 있다.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이다. 이 영화는 내가 평소 좋아하는 슈퍼 히어로 장르의 영화인데 같은 장르의 다른 영화들과는 다른 점이 많은 흥미로운 영화이다. 놀란 감독은 영화 촬영 시 CG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편인데 히어로 영화 특성상 cg가 많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cg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촬영을 하여 사실성이 높은 연출로 영화를 볼 때 몰입이 잘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범죄, 스릴러 장르를 슈퍼 히어로 장르에 잘 녹여내어 두 영화의 장점이 모두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다. 특히 이 영화는 캐릭터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놔서 누구 하나 버릴 캐릭터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영화의 메인 악역인 조커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영화계에서 상징적인 악역이 되었다. 사람들은 슈퍼 히어로 영화라면 흔히 유치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를 본다면 자신의 기준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범죄, 스릴러 장르의 팬들까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다들 한번 보면 좋을 그런 영화라고 생각한다.

백\*\*: 내가 가장 좋아하고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시리즈다. 토이스토리는 1,2,3,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토이스토리는 4편이었다. 토이스토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라서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없었는데, 토이스토리 4를 처음으로 극장에서 볼 수 있었다. 극장에서 2번 봤고 이후에도 집에서 여러 차례 돌려봤지만, 이전의 토이스토리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감동이 있었다. 앤디가 커서 장난감들을 두고 대학으로 떠났고, 우디와 버즈를 비롯한 장난감 친구들은 보니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포키라는 새로운 친구가 오게 된다. 캠핑카를 타고 보니네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는데 포키는 자신이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계속 탈출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이 내가 마치 자기 비하하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해서 그저 웃으면서만 바라볼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토이스토리는 내 삶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토이스토리 시리즈 전체를 보시기를 강력 추천한다.

2022년 06월 02일

참가자대표 : 강\*\*